

## 陰陽과 五行의 關係

朴 贊 國

### I. 序 說

모든 事物이 構造가 있고서 또한 機能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構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構造를 이루는 데에 이미 일정한 法則이 있으니 이를 把握한 것이 저 周易의 先天圖(河圖)요, 그 機能을 把握한 것이 後天圖(洛書)인 것이다. 그런데, 이 河圖와 洛書는 宇宙生成의 本元을 말한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그냥 理致로 남아 있는 것이고, 實際 人間의 日常生活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것이다. 河圖에는 이미 五行으로 分化될 씩이 갖추어져 있고, 또한 洛書도 앞으로 陰陽으로 分化될 씩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직접 우리 生活에 應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 醫學에서는 이미 分化되어 있는 五行과 陰陽을 도입하여 理論體系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醫學을 하려면 陰陽과 五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把握하지 않고서는 아니된다. 그리하여, 먼저 陰陽과 五行의 概念을 좀 쉽게 정리하고, 다음에 陰陽과 五行이 실제 우리 人體의 구조와 기능의 설명에 어떻게 運用되고 있나를 보고, 마지막으로 疾病의 辨證에 대한 陰陽五行의 運用에 對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 II. 陰陽五行의 概念

#### 1) 陰陽의 概念

陰은 그늘진 곳이고, 陽은 빛이 드는 곳이며, 男子는 陽이고, 女子는 陰이라는 것은 陰陽을 區分하려는 것이지만 實際 陰陽의 概念을 理解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男子가 陽이라고 하지만 男子에게 陰이 없을 수 없고, 女子가 陰이라고 하지만 陽이 없을 수 없다. 단지 男子 女子를 대비시킬 때 男子는 陽이고 女子는 陰이라는 것이다. 더욱 重要的 것은 男子와 女子가 合해져야만 비로소 陰陽이 合하여 하나의 太極을 이루어 家庭과 社會를 이루고 子孫을 번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人間이란 하나의 事物이 있다면, 그 人間이라는 事物은 원래 陰陽이 잘 조화된 太極의 事物이었는데, 그 太極이 分化發達하여 결국 男과 女로 나뉘었지만, 다시 男과 女가 合해져야 비로소 原來의 人間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陰陽이 統體的인 概念이고 陰과 陽을 區分하여 설명한다면, 陰陽은 事物의 運動과 變化의 性質을 말한 것인데, 모든 事物은 반드시 週期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주기는 반드시 事物이 그

場을 즉 활동범위를 넓혔다가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1주기를 삼는다. 가장 쉬운 예로 草木이 잎이 피고 줄기가 뻗어나는 것은 陽이요, 잎이 떨어지고 씨가 맺는 것은 陰인 것이다. 즉, 伸縮運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宇宙의 모든 事物은 왜 이렇게 伸縮運動을 하고 있단 말인가? 거기엔 반드시 어떠한 理由와 目的이 內在하고 있을 것이다. 즉, 사물이 자기를 펴는 것은 곧 事業을 하자는 것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침에 물건을 퍼놓듯이 모든 事物이 事業을 하기 위하여 즉 事物이 自己 이외의 다른 事物과 交通하기 위하여 자기를 펴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를 움추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 밤이 되면 진열해 두었던 물건을 갈무리해야 도둑도 막고, 풍수해도 막고, 또한 재고를 정리하고 결산도 할 수 있듯이 모든 사물도 자기를 펴서 어느 정도 事業을 했으면 이를 건우어 갈무리를 해야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알아 반성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사람만 事業을 하고 동식물이나, 광물 등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동식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事業을 벌이고, 動植物은 또 광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事業을 벌리는데 만약 광물 등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들 사업을 벌릴 수 있단 말인가? 즉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면 流動속도가 빨라지고, 부피가 늘어나는 것이나, 植物이 해가 떠야만 동화작용을 하고 호흡을 하는 것이, 각기 나름대로 自己의 事業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陰陽이란 바로 모든 事物의

活動에서 떠나가는 사업활동을 陽이라 하였고, 거두어 정리하는 사업활동을 陰이라 하였다. 즉 이 陰陽은 事物의 本體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고, 그 作用과 기능을 가리켜 한 말이라는 것이다. 즉 男子가 陽이라는 것은 男子가 事業을 떠나가기 때문에 陽이라고 한 것이지, 男子의 몸 자체가 陽이라는 말은 아니다. 女子도 곧 男子가 편 事業을 거두어 갈무리한다는 意味에서 陰이라는 뜻이지, 女子의 몸 자체가 陰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볼진대 우리는 한 事物안에도 陰陽이 共存함을 알 수 있고 또한 時間적으로 陰과 陽이 서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陰陽에는 가장 쉬운 概念인 相互對立的인 性質 이외에도, 여러 가지 概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草木이 잎이 무성하게 자란 후에 충실한 열매가 맺고, 충실한 열매가 있어야 튼튼한 싹이 튼다는 면에서 보면 陰陽은 相生性 즉 서로 돕는 性質이 있고, 또한 싹이 틀 때는 열매가 썩어야 되고, 열매가 크려면 잎이나 줄기의 成長이 멈추어야 된다는 意味에서 보면 相克性(서로 억제할)도 있다. 그러나 事物에서 陽이 作用하려면 반드시 陰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한 陰이 그 작용을 발휘하려면 陽이 있어야 한다. 즉, 草木의 잎과 줄기가 번성하려면 뿌리 즉 씨가 튼튼하여야 하고, 씨가 크게 맺으려면 잎과 줄기에 陽이 事物과 交通하여 벌어들인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야 하며, 이 충분히 쌓여 있는 陽의 업적을 거두어 크고 단단한 열매를 맺어 놓으면 다시 크게 잎과 줄기가 번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陰陽의 互根이라 한다. 이처럼 陰陽은 相互對立的인

것이 아니라 補助的인 調和의 관계에 있고, 단지 이 자연스런 調和가 깨어질 때는 相克的인 관계로 變하는 것이다.

#### ㄴ) 五行의 概念

우리가 흔히 陰陽에 對하여는, 陰이 變하여 陽이 되고, 陽이 變하여 陰이 된다는 理致를 알고 있어, 陰陽이 그대로 완전히 分離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五行은 단순히 木, 火, 土, 金, 水라 하여, 완전히 分離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물론, 陰陽도 獨立하여 存在하는 것이 아니지만, 五行도 더욱 獨立하여 存在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五行歸類에서 五色, 五味, 五藏, 五畜 등을 각기 나누어 五行에 配屬시키다보니 마치 五行이 分離 獨立하여 存在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가 事物을 五行에 配屬시키는 것은 단지 五行의 性質이나, 作用을 설명하고, 認識하자는 것 뿐이지 五行 自體가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다.

즉 例를 들어 설명한다면 五色中에서 靑色은 東方木이니, 五行中의 木에 속한다. 그렇다고 하여 靑色이 바로 木이라는 것은 아니고, 같은 조건이라면 靑色을 띤 것은 木의 性質과 作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나무가 靑色이라면 바로 靑色이 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이나 물이 靑色이라면 어찌하겠는가? 불이나 물은 이미 火와 水의 性質을 가지고 있지만, 靑色을 띤다면 불과 물 중에서는 木의 性質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불이 靑色이라면 그 靑色을 띤 빨간불이나, 노란불 보다는 내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힘이 많다는 말이다.

結論적으로 五行은 단지, 한가지 事物의 性質이나 作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肝心脾肺腎의 五臟을 따로따로 나누지 않고, 합하여 五臟이라는 事物로 認識하였을 때 肝, 心, 脾, 肺, 腎 등은 단지 五臟의 일부분으로서 五行機能中의 木, 火, 土, 金, 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즉 五臟은 다섯 臟器가 協力하여야 그 機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獨立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肝이 그 機能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脾, 腎, 心 등의 協력이 없이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五臟의 形象이나 機能을 便宜上 따로따로 認識하고 있지만, 人體內에서의 五神을 藏하여 精神活動의 기저가 되는 五臟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반드시 五臟의 統合機能을 把握하여 五臟을 한개의 事物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五行이 어떻게 이렇게 統合되어 하나로 作用할 수 있나를 생각하여 보자. 根本적으로 五行은 陰陽에 비하여 本體를 이루는 구조라고 말하였는데, 이 本體는 用이 革新的이라든 保守的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五行이 保守的인 것이므로 그 活動도 陰陽이 變化가 심하고 현저히 드러나는데 비하면 恒常적이고 뚜렷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특히 五行活動에서, 木火土金水가 旺衰함에 따라서 활동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木이 旺하다고 하여, 火土金水가 活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단지 木이 다른 五行에 비하여 조금 旺盛하다는 것 뿐이다. 즉 五行은 陰陽에 비하여 體이므로, 內的인 것이고 뿌리같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五行은 그 活動이 內部와 밑에서만 이루어지므로 陰陽에 비하여 잘 나타나지도 않고, 時間과 空間의 變化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五行도 역시 時間에 따른 變化를 겪지 않을 수는 없다. 다시 五行이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理由를 생각해 본다면 五行은 土에 의하여 하나의 完全한 統一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人類는 영구기관을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努力해 왔으나 아무도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自然은 그 自體가 이미 영구기관이고, 모든 事物이 五行의 統一體로 永久的으로 그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즉 五行運動에서 木이 그 機能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水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즉 水는 精을 藏하고 있으므로, 精의 도움을 받아, 木의 發生機能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 木의 運動은 반드시 자기가 쓴 이상의 精을 생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 어떤 木의 運動이 10의 精을 소모하였다면, 그 木의 運動結果는 반드시 10 이상의 精을 再生産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 놓고서 운동을 마친다. 五行이 바로 이렇게 오히려 확대재생산적인 運動을 계속할 수 있는 原因은, 바로 木火金水의 上下左右로의 升降浮沈의 運動 이외에 中央에서 仲介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土의 存在에 의해서이다. 土는 그 性質이 매우 탄력적이어서 木火金水의 刺戟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五行의 運動量을 증폭시켜 줄 수도 있다. 즉, 木의 運動에 의하여 升의 힘이 작용하면, 그 역작용인 降의 작용을 그대로 金에 전하고, 升의 여운은 火에 傳하고, 升의 여운의 역작용은 水에 傳할 수 있다. 또는, 이렇게 運動의 영향을 순간적으로 傳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깊숙히 간직해 두었다가 적당한 時期에 전달할 수도 있다. 만일 현대물리학의 물리량의 계산이 10

kg의 힘을 가하여 10 kg의 運動을 했다고 계산하지만, 밥 한술의 보시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쌀 한가마니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우리 人間, 곧 天地自然의 마음인 것과 같다. 우리가 1을 주면 1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본다면 五行의 運動이 어떻게 永久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理解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天地自然의 非數理的인 마음을 우리는 土라고 보고 있다.

五行은 土에 의하여 이렇게 안정되어 있으므로, 물론 內的으로는 부단히 승강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나, 겉으로 보기엔 거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宇宙에 存在하는 모든 事物은 적어도 일정 시간을 두고 存在하는 事物은 반드시 五行이 그 속에 存在하여야 한다. 만약 五行이 없다면 우리가 그 存在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陰陽은 부단히 變化하는 動的인 狀態라면, 五行은 부단히 變化하면서 靜의 狀態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즉 事物이 부단히 變하기만 하고 일순간도 정지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 存在를 느낄 수 있겠는가?

### Ⅲ. 人體에 있어서의 陰陽과 五行

陰陽은 表요, 五行은 裏라 할 수 있으므로, 五臟六腑는 五行이요, 經絡은 陰陽이라 할 수 있다. 또 나아가 精氣는 五臟六腑에서 生藏하고 그 內에서 순환하는 것이요, 氣血은 經絡을 運行하고 있는 것들이다. 물론 臟腑와 經絡은 서로 이어져 있어 氣血과 精氣의 순환에 관여하고 있지만, 五臟과 六腑는 內에서

精氣와 氣血을 生藏하여 經絡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므로 人體의 根本이 되며, 經絡은 氣血과 精氣를 全身에 순환시키고, 氣血을 表에서 습하여 精을 生成하므로 곧 줄기나 잎 같은 역할을 한다.

### ㄱ) 五臟六腑와 精氣 氣血의 순환

人體는 앞에서 말하였듯이 五臟六腑가 主管하고 있는 內部와 經絡이 主管하고 있는 外部로 나눌 수 있는데, 精氣는 內에 藏하였다가 外로 나오면서 기능을 발휘하고, 氣血은 外를 순환하다가 精을 合成하여 內로 들어간다. 물론 氣血이 內에 藏하였다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精을 合成한다는 면에서만 본다면 外에서 內로 들어가면서 精을 合成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精은 氣로 化하여 氣血을 生成하고 運行시키는 것이 그의 目的이라면, 氣血은 全身을 運行하지만, 最終적으로 精을 合成하는 것이 그의 目的이라는 것이다.

精은 內에 藏하므로 五臟六腑 특히 五臟의 주관하에 있고, 氣血은 外에 經絡의 주관하에 있으나 氣血의 運行도 根本적으로 精氣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五臟六腑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단 精氣의 運行에 대하여만 생각해 보기로 하자.

精은 氣血의 合成이라고 말하였듯이, 곧 陰氣와 陽氣가 잘 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精은 陰으로 기울어진 것도 아니요, 陽으로 기울어진 것도 아니며, 아주 安定된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精은 周易의 先天圖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精이 이렇게 安定되

어 있으므로 精을 藏하고 있는 五臟이 經絡에 비하여 훨씬 安定되어 있고, 五臟의 精을 藏하고 있는 腎은 더욱 安定되어 있다. 또한 五臟이 晝夜四時에 그 활동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바로 精처럼 陰陽의 調和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五臟이 이렇게 조화만 잘 이루어져 있다면 精氣의 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서 바로 六腑가 등장하게 된다. 특히 三焦의 役割이 바로 精氣 순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胃, 大小腸, 膽, 膀胱 등이 모두 體表의 陽部를 흐르는 經絡과 連結되어 있으므로 이미 그곳으로부터 精을 氣化시켜 달라는 刺戟을 많이 받아오다가, 드디어 三焦에 이르면 三焦의 上焦는 心の 神에 刺戟을 주고, 下焦는 腎의 精에 직접 刺戟을 주어 精의 氣化를 促進시켜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陰經絡으로부터 氣血을 精血로 陰化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心腎에 요청하여 氣血을 精血로 만들어 歸藏하기도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心에 藏하여 있던 心精은 먼저 小腸에서 그 作用이 發顯되고, 아울러 小腸經과 心經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肺精은 먼저 大腸에서 그 작용이 나타나고, 大腸經, 肺經에서도 아울러 나타날 것이다. 다른 臟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 ㄴ) 經絡에 依한 氣血 精氣의 순환

藏府에서 이미 말했듯이 經絡이 精氣의 순환과 生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經絡은 氣血의 순환에 注力하고 있다.

그런데, 먼저 精氣와 氣血의 區分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精氣라 함은 精에서 나온 氣인데, 精이라 함은 모든 生物이 活動을 하고 나서 생긴 經驗과 知識을 收錄하고 아울러 자신의 後孫을 키울 힘까지 넣어서 저축해 두는 물질을 말한다. 즉 우리 人間이 살면서 歷史를 기록하고, 기술을 축적하고, 기간시설을 확충하여 後孫에게 물려줌으로 後孫들이 훨씬 쉽게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일단 몸속에 저장되었던 精은 적당한 시기가 되면 氣로 化하여 五臟六腑의 활동, 經絡氣血의 활동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內經 素問》의 天癸가 至하였다는 말은 이미 부모로부터 받은 精에 의하여 身體와 精神이 發達하였으니, 이제 스스로 精을 生産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精의 生産이 男子는 16세, 女子는 14세가 되어야 生産되기 시작하듯이, 남자는 64세, 여자는 49세가 되면 生産이 중지되고 만다.

일단 이렇게 氣로 化한 精氣는 水穀에서 生成된 氣血과 같이 經絡을 순행하면서 身體의 모든 活動을 추동한다. 그러나 精氣는 氣血이 정미롭게 合成된 것이므로, 단지 추동만 할 뿐, 실제 힘을 발휘하는 데에는 水穀의 氣가 쓰인다. 즉, 허드레일은 모두 水穀의 氣가 담당하고 있다.

經絡을 陰陽으로 表現하는 理由는, 五行은 本體로 씨와 같은 것이고, 뿌리와 같은 것이 라면, 陰陽은 싹과 같은 것이요, 잎과 같은 것이므로, 經絡을 陰陽으로 表現하는 것이다. 즉, 陰陽이 時間에 따라 陰에서 陽으로, 陽에서 陰으로 變하듯이 經絡도 氣血이 陽經으로 흐르다가 陰絡으로 흐르고, 陰經으로 흐르다가 陽經으로 흘러 그 變化가 매우 심하다.

즉 우리가 잠을 자다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體内の 氣血이 陽化되면서 陽經으로 흐르기 때문이며, 잠을 자는 것은 衛氣가 足少陰腎經을 거쳐 五臟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經絡에 흐르는 氣血은 晝夜나 季節에 따른 變化가 곧 天地의 陰陽變化에 그대로 순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三陰三陽으로 經絡을 名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實際 三陰三陽經의 名稱은 왜 그렇게 붙였으며, 流注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먼저 足少陽經絡을 보면, 足少陽經은, 바로 相火를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少陽經이라 하였고, 少陽이 開闔樞에서 樞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太陽과 陽明의 사이를 흐르고 있다. 다음 足陽明은, 陽明은 兩陽의 合明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兩陽은 太陽과 少陽이라는 말도 있지만, 筆者는 이렇게 생각한다. 兩陽이라 함은 바로 腎에서 少陽을 따라 올라온 相火와 外에서 들어온 穀氣가 相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陽明이라 함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던 陽氣(相火)와 外에서 들어온 陽氣(水穀之氣)가 合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곡기를 배에서 받아 들이므로 陽明經은 자연히 복부를 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足太陽經은 우리의 背部를 지나고 또한 가장 넓은 流域을 가지고 있는데, 그 理由는 무엇일까? 우리 인체의 氣血이나 精은 少陽에서 陽明 太陽을 거치면서 점차 陽化되어가고 있다. 즉, 少陽은 아직 어리고 太陽은 늙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크다는 뜻에서 太陽이므로, 많은 면적을 차지할 수 밖에 없고, 또 우리 인체에서 가장 表部인 背部를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太陽

經이 足部에서는 뒷면으로 흐르긴 하지만 그곳을 만져보면 부드러운 陰部임을 알 수 있다. 즉 다리의 太陽이 흐르는 곳은 陽部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理由는 무엇일까? 太陽은 老陽이고 또한 老陽이므로 精을 合成하여 腎에 藏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陽明, 太陽을 거쳐 合成한 精은 太陽은 背部의 五輪穴을 지나면서 길위에 腎經에 전하려고 陰部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陰經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 IV. 辨證에 있어서의 五行과 陰陽

陰陽이 辨證에 應用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들이나, 즉 六經辨證이 바로 陰陽이요, 八綱辨證이다. 衛氣營血辨證도 모두 陰陽에 의한 辨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五行이 辨證에 어떻게 應用되며, 만약 應用이 되지 않는다면 그 理由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陰陽이 辨證에 쉽게 應用될 수 있는 까닭은 陰陽은 表로써 또는 用으로써 그 變化現象이 쉽게 감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五行은 體이므로 그 變化도 완만할 뿐만 아니라, 설사 變化가 있다할지라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感知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辨證에 五行이 陰陽보다 적게 쓰이는 것은 당연하다.

陰陽의 變化는 經絡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단지 經絡에만 病이 있다면, 단지 惡寒만 있고, 發熱은 거의 없다든지, 發熱만 있고 惡寒은 없다든지, 또한 太陽經에 病이 들면 太

陽經이 흐르는 곳만 아프다든지, 陽明經에 病이 들면 陽明經이 流注하는 곳만이 發熱이 있는 등, 그 症狀이 분명하고, 나타나는 곳도 定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五臟의 症狀은, 心에 病이 있다 할지라도 그 症狀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肺·脾 등의 症狀과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藏象을 연구하여, 미미한 變化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六經病症은 뚜렷한 病症이 있으므로 쉽게 우리가 病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것 등의 理由로 五行이 陰陽보다 辨證에 널리 應用되지 못하고 있는 理由이다.

그러나, 微微한 象을 分別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사람이라면, 外로 나타난 經絡의 病症보다 五臟을 통하여 나타난 藏象을 보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 훨씬 정확한 진단이 될 것이다. 바로 우리 李濟馬 先生의 四象醫學이 보다 깊이 體質의 특징 곧 藏府의 象을 把握하여 辨證하는 醫學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혜안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 V. 맺음말

우리 醫學이 陰陽과 五行으로 그 理論體系를 세웠음이 분명하고, 그 理論體系에 의하여 지금까지 훌륭한 업적을 쌓아 왔음도 사실이므로, 앞으로 많은 研究가 요청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現代는 반드시, 實驗에 의하여 客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科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단지 개인이 主觀적으로 觀察한 것은 科學이 아니라고 배제해 버리려 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思考方式에 다시 도전해 보고자 한다. 實驗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보고 마음 속에서 꼭 그렇다고 인정되는 것이 어찌 眞理가 아니겠는가? 또한 그러한 理論에 의하여 發展된 醫學이 實際 臨床에서 우수한 效果를 거두고 있음에도 말이다.

여하튼, 五行은 宇宙 萬物의 本體의 生成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요, 陰陽은 그 變化를 설

명하고 있다. 그리고 人體에서는 五臟六腑는 五行에 응하는 本體요, 經絡은 變化를 담당하는 陰陽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人體에서는 五臟은 本이 되고, 經絡은 用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辨證에 있어서는 陰陽이 쉽게 感知되므로 널리 쓰이고, 五行은 本體로서 그 變化가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게 쓰이고 있다.

